


모심으로 하나되는~

포덕 164년 천일기념

포덕 164(2023)년 4월 5일

 천도교중앙총부

포덕 164년

天 日 기 념



포덕 164년 4월 5일

 천도교중앙총부

차례

식순	03
기념사	04
천덕송_제13장 기념송	10
천덕송_제15장 천일기념가	12
포덕문	14
수운 최제우 대신사님 약력	18

기념식 식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전봉독_ 포덕문
1. 천덕송 합창_ 제13장 기념송 / 1절-3절
1. 기념사
1. 축 사
1. 포상 및 장학증서 수여
1. 천덕송 합창_ 제15장 천일기념가 / 1절-3절
1. 심 고
1. 폐 식

[기념식후]
- 축하공연

기념사

국내외 동덕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운대신사께서 동학 천도교를 창명하신 지 제164주년이 되는 천일기념일입니다. 개벽 후 오만 년 동안 노이무공하시던 한울님이 수운대신사를 만나 성공하여, 한울과 사람과 만물이 더불어 새로워짐을 선포하신 후천 개벽의 첫날입니다.

수운대신사께서 지으신 용담유사의 용담가에서

천은이 망극하여 경신사월 초오일에
글로어찌 기록하며 말로 어찌 성언할까
만고없는 무극대도 여몽여각 득도로다
기장하다 기장하다 이내운수 기장하다

라고 노래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나도성공 너도득의 대신사님 마음따라 어울렁더울렁 모든 동
덕들과 이웃들과 손을 맞잡고 크~게 넓~게 좋을시고 좋을시고
이내신명 좋을시고 한울님 성공하신 날의 기쁨을 노래합시다.

1860년 4월 5일 대신사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한울님께서 성
공하신 날! 금불문고불문 금불비고불비(今不聞古不聞 今不比古
不比) 무극대도를 받으시고 무궁한 이 울속에 무궁히 살피내어
무궁한 도를 펴시니, 하늘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듯이
빛나는 성령이 만물로 드러나시었습니다.

지기금지 원위대 강

이로부터 164년 세월이 굵이굵이 사연으로 흐른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대신사님 심정이 어떠하실까를 생각해봅니다.

현대를 사는 삶의 기본 틀은 어느새 자본과 물질이 우선하고, 또 다른 빈부의 계층이 형성되어 그 그늘 속에서 소외되고, 외롭게 생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독단의 정치로 내전이 끊이지 않아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뒤틀린 역사관을 앞세우고 물질의 위력을 과시하며 이웃을 옥죄이는, 윤리가 무너진 나라들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천지 부모를 섬기지 않고 지구 생명에 등 돌린 채, 천도에 역행하는 가슴 아픈 일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한울님을 성공시킨 대신사님의 간절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라도 다쳐서는 아니 되는 만물의 신성함,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인간 생명의 존엄함, 더 나아가 흙덩이 하나, 가너린 풀 하나하나, 날짐승 길짐승, 꿈틀거리는 미물들,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크기이든지, 형상을 갖춘 그 모든 것들은 나눌 수 없는 영적인 거룩함의 산물들입니다.

또한 그들을 잉태한 한울님은 그들 만물과 사람이 한울님 마음으로 살아가길 염원하고 또 염원하시며, 우리 같은 전율을 넘어서는 냉철함과 뜨거움으로 대신사님의 간절한 기원과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천주” 주문을 통해 천도의 삶을 세상에 펼치셨습니다. 이것이 개벽 세상의 시작이며, 개벽 운수의 원류인 것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164년 전 그리고 지금에도 아니, 더 나아간 세월 가운데에도 나에게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찬 한울님의 마음 대신사님의 마음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마다 마음마다 빛나고 화려한 성령의 빛으로 기장하게 내 운수를 밝히도록 크~게 넓~게 노래합시다.

오랜 어둠 속에서 세상 사람, 세상 만물, 내 마음 살리려 세상 밖으로 모시고 드러낸 “시천주”를 노래합시다. 나도 성공 너도 득의 대신사님의 마음 따라 한울님 성공하신 날의 기쁨을 노래합시다.

오늘 천일기념일을 맞이하여 북녘의 동덕 여러분, 동포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남북 정세는 어렵고 힘든 고비에 봉착해 있습니다. 남북 천도교인들이 앞장서서 보국안민 정신을 면면히 계승하여 포덕천하, 광제창생을 이루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가 한울님과 부모님의 은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스승님의 은덕으로 천도교에 입도하여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실로 천복입니다. 한울님 마음을 지켜 내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 믿음, 공경, 정성으로 지상천국을 건설합시다.

존경하는 남북의 동덕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동포여러분!

한울님과 스승님의 은덕으로 이 땅에 무극대도가 창명 된 천일기념일을 맞으며, 천도교 창도 정신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내 삶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열어나가기를 심고하면서 기념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64(2023)년 4월 5일

천도교 교령 박 상 중 심고

제13장 기념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울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회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쯔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쯔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득 희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닦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종 을 시 고 종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종 을 시 고

제15장 천일기념가

1. 한 울 님 의 높 으 신 - 목 소 리 로
 2. 한 한 울 님 은 두 려 말 라 하 시 며 서 서 승
 3. 한 한 울 님 이 우 리 스 만 나 리 스 서 서 승
 4. 한 한 울 님 이 우 리 스 만 나 리 스 서 서 승
 5. 한 한 울 님 이 우 리 스 만 나 리 스 서 서 승

1. 우 리 스 승 을 크 세 부 르 실 - 때
 2. 우 리 스 스 승 - 크 마 음 진 정 하 실 - 때
 3. 처 음 으 로 그 공 이 무 실 - 때
 4. 내 마 음 이 곧 내 맘 이 다 하 실 - 때
 5. 맘 기 - 배 홀 로 즐 기 실 - 때

1. 구 질 구 질 오 - 는 비 는 개 었 고
 2. 맑 - 은 바 람 은 천 히 불 고
 3. 큰 - 밤 을 깨 러 천 는 탐 소 리 고
 4. 잔 나 비 부 르 그 아 - 칩 - 리 고
 5. 온 우 주 를 치 음 는 그 아 - 칩 - 리 고

1. 검 은 구 림 은 사 리 졌 구 나
 2. 용 담 물 결 은 고 요 하 구 나
 3. 새 벽 의 소 식 을 전 해 주 누 나
 4. 봉 황 의 소 식 을 전 해 주 누 나
 5. 등 실 의 소 식 을 전 해 주 누 나

후렴

거룩하신 스승말씀에

사람이 곤한 울인 - 줄

우리들이 깨달았으니

잊지 못할 이 아 - 침

布 德 文 (포덕문)

盖自上古以來 春秋迭代四時盛衰 不遷不易 是亦天主造化之迹 昭然于天下也 ①

저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사시가 성하고 쇠함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이 또한 한울님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로되,

愚夫愚民 未知雨露之澤 知其無爲而化矣 ②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무위이화로 알더니,

自五帝之後 聖人以生 日月星辰 天地度數 成出文卷而以定天道之常然 一動一靜一盛 一敗 付之於天命 是敬天命而順天理者也 故 人成君子 學成道德 道則天道 德則天德 明其道而修其德 故 乃成君子 至於至聖 豈不欽歎哉 ③

오제 후부터 성인이 나시어 일월성신과 천지도수를 글로 적어내어 천도의 뗏뗏함을 정하여 일동일정과 일성일패를 천명에 부쳤으니, 이는 천명을 공경하고 천리를 따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군자가 되고 학은 도덕을 이루었으니, 도는 천도요 덕은 천덕이라. 그 도를

밝히고 그 덕을 닦음으로 군자가 되어 지극한 성인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부러워 감탄하지 않으리오.

又此挽近以來 一世之人 各自爲心 不順天理 不顧天命 心常悚然
莫知所向矣 ④

또 이 근래에 오면서 온 세상사람이 각자위심하여 천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천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항상 두려워 어찌할 바
를 알지 못하였더라.

至於庚申 傳聞西洋之人 以爲天主之意 不取富貴 功取天下 立其堂
行其道故 吾亦有其然豈其然之疑 ⑤

경신년에 와서 전해 듣건대 서양사람들은 천주의 뜻이라 하여 부귀
는 취하지 않는다 하면서 천하를 쳐서 빼앗아 그 교당을 세우고 그 도
를 행한다고 하므로 내 또한 그것이 그럴까 어찌 그것이 그럴까 하는
의심이 있었더니,

不意四月 心寒身戰 疾不得執症 言不得難狀之際 有何仙語 忽入耳
中 驚起探問則 曰勿懼勿恐 世人謂我上帝 汝不知上帝耶 問其所然
曰余亦無功故 生汝世間 教人此法 勿疑勿疑 曰然則 西道以教人乎
曰不然 吾有靈符 其名仙藥 其形太極 又形弓弓 受我此符 濟人疾病
受我呪文 教人爲我則 汝亦長生 布德天下矣 ⑥

뜻밖에도 사월에 마음이 선뜩해지고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인지 짐증할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어떤 신선이 말씀이 있어 문득 귀에 들리므로 놀라 캐어물은즉 대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 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시기를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묻기를 「그러면 서도로써 사람을 가르치리이까.」 대답하시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나에게 영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형상은 궁궁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퍼리라.」

吾亦感其言 受其符 書以吞服則 潤身差病 方乃知仙藥矣 到此用病則 或有差不差故 莫知其端 察其所然則 誠之又誠 至爲天主者 每每有中 不順道德者 一一無驗 此非受人之誠敬耶 ⑦

나도 또한 그 말씀에 느끼어 그 영부를 받아 써서 물에 타서 마셔본 즉 몸이 윤택해지고 병이 낫는지라, 바야흐로 선약인줄 알았더니 이것을 병에 써봄에 이르른즉 혹 낫기도 하고 낫지 않기도 하므로 그 까닭을 알 수 없어 그러한 이유를 살펴본 즉 정성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어 지극히 한울님을 위하는 사람은 매번 들어맞고 도덕을 순종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효험이 없었으니 이것은 받는 사람의 정성과 공

경이 아니겠는가.

是故 我國惡疾滿世 民無四時之安 是亦傷害之數也 西洋戰勝功取
無事不成而 天下盡滅 亦不無膏亡之歎 輔國安民 計將安出 ⑧

이러므로 우리 나라는 악질이 세상에 가득 차서 백성들이 언제나
편안할 때가 없으니 이 또한 상해의 운수요,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다 멸망하면 또한 순
망지탄이 없지 않을 것이라. 보국 안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인가.

惜哉 於今世人 未知時運 聞我斯言則 入則心非 出則巷議 不順道
德 甚可畏也 賢者聞之 其或不然而 吾將慨歎 世則無奈 忘略記出 諭
以示之 敬受此書 欽哉訓辭 ⑨

애석하도다. 지금 세상사람은 시운을 알지 못하여 나의 이 말을 들
으면 들어가서는 마음으로 그르게 여기고 나와서는 모여서 수군거리
며 도덕을 순종치 아니하니 심히 두려운 일이다. 어진 사람도 이를
듣고 그것이 혹 그렇지 않다고 여기니 내 못내 개탄하거니와 세상은
어찌 할 수 없는지라, 간략하나마 적어내어 가르쳐 보이니 공경히 이
글을 받아 삼가 교훈의 말씀으로 삼을지이다.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대신사님 약력

- 포덕전 36년(1824) 10월 28일 경주 월성군 현곡면 가정리에서
부친 경주 최씨 옥과 모친 한씨 사이에서 탄생하시다.
처음 이름은 제선(濟宣) 자는 도언(道彦) 이시다.
- 포덕전 29년(1831) 모친 환원하시다.
- 포덕전 20년(1840) 부친 근암공 환원하시다.
- 포덕전 18년(1842) 울산의 밀양 박씨와 혼인하시다.
- 포덕전 17년(1843) 집이 불타 용담정으로 이사하시다.
- 포덕전 16년(1844) 주유천하에 나서시다.
- 포덕전 6년(1854) 주유천하를 마치고 울산 유곡동(일명 여시바윗골)에
초가 삼간을 짓고 구도의 수행에 들어가시다.
- 포덕전 5년(1855) 3월에 유곡동에서 을묘천서를 받으시다.
- 포덕전 4년(1856) 양산 천성산 내원암에서 수행하시다가 숙부의 환원을 직관하시고
47일만에 하산하시다.
- 포덕전 3년(1857) 천성산 적멸굴에서 다시 49일간의 기도를 마치시다.
- 포덕전 1년(1859) 10월에 경영하던 철점이 파산되어 집과 땅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용담으로 돌아오시다.

- 포덕 1년(1860) 2월에 입춘시를 지으시며 구도의 결의를 다지시다.
이름 제선을 제우(濟愚)로, 자 도언을 성묵(性默)으로,
호를 수운(水雲)으로 고치시다.
4월 5일 용담에서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으시다.
5월 용담가를 지으시다.
- 포덕 2년(1861) 6월부터 포덕을 시작하자 어진 선비들과 민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다.
7월에 포덕문, 8월에 안심가를 지으시다.
11월에 유생들이 서학으로 몰아 관으로부터 탄압이 있자
제자 최중희를 데리고 남정길에 오르시다.
12월 호남지방 남원 교룡산성 隱跡庵에 은거하시다.
- 포덕 3년(1862) 1월에 권학과와 논학문을 6월에 수덕문과 몽중노소문답가를 지으시다.
7월에 경주부 청송으로 돌아와 박대여의 집에 머무시다.
9월 많은 제자들이 출입하자 경주영장은 대신사를 체포, 이 소식을
들은 도인 5-6백명이 모여 영장에게 항의하자 5일만에 석방하다.
10월 14일 처신을 신중히 하라는 통문을 띄우시다.
11월 9일 흥해 매곡동 손봉조의 집으로 옮기시다.
12월 26일에 연원의 효시가 되는 접주(接主)를 최초로 임명하시다.
- 포덕 4년(1863) 3월 9일 용담정으로 돌아와 필법을 지으시다.
4월에 좌잠을 지어 강수에게 주시다.

6월에 개접(開接)하여 많은 도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다.

7월 23일 파접(罷接)하시다.

이날 최경상에게 해월(海月)의 도호를 지어주시고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으로 임명하시다.

하순에 도덕가를 지으시다.

8월 초순에 흥비가를 지으시다.

8월 14일 최해월에게 도통(道統)을 전수하시다.

11월 불연기연을 지으시다.

12월 10일에 조정에서 파견한 선전관 정운구에게 피체되시다.

대신사와 이내겸은 서울로 압송되고 나머지 30명은 경주옥에 하옥되다.

12월 20일 과천에 당도했다가 철종의 국상(國喪)을 당하여

경상감영에 환송되시다.

포덕 5년(1864)


1월 6일에 대구 감영에 수감되시어

20일부터 혹독한 신문(訊問)을 받으시다.

3월 10일 좌도난정률의 누명을 쓰고

대구 관덕당에서 참형을 받아 순도하시다(41세).



 천도교중앙총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우)03147
www. chondogyo.or.kr e-mail 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